

# 楊州於屯里 破佛三軀

金 吉 雄

## 一、머리말

이 寺址는 京畿道 楊州郡 州內面 於屯里에 있다. 자그마한 野山이 三面을 둘러싸고 있어 마치 左白毫, 右靑龍의 형세를 갖춘 삼태기 모양의 狹谷 平地에 南向한 典型的인 寺址였다고 생각된다. 이 곳에는 깨어진 石佛 三軀와 石燈의 火舍 石片, 蓮花臺座, 石碑, 기타 石部材, 瓦當片, 陶磁器片 등이 散在하고 있다.

현재 寺址가 자리하고 있는 곳은 바로 인접하여 壬辰倭亂 때 격전지로 전하고 있는 大母山城(一名 楊州山城)①이 있다. 이 山城은 해발 二〇〇m 높이에 축성되었는데, 城域은 넓이 四〇〇m, 둘레 一四〇〇m 의 조그마한 규모이지만 內·外城을 갖추고 있다. 이 山城에 오르면 壬辰倭亂 때 倭敵의 접근로인 楊州郡 廣積面 一帶를 굽어볼 수 있는 위치로 보아 전략적인 要塞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② 따라서 이러한 지리적 위치에 寺址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단 주목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격전지였던 大母山城에 인접한 이 寺刹은 그 당시 전란의 큰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실은 이곳에 다른 石部材와 함께 遺存되고 있는 石碑(圖—一, 朝鮮 肅宗 四年, 一六七八)의 銘文으로 더욱 그러하다. 銘文은 마모로 인하여 전체를 판독하기는 어려우나 「康熙十七年戊午立石」이란 건립년대와 「大施樂善者, 主, 大, 重發, 化主」 등의 銘文은 판독할 수 있다. 이 銘文에서 重發 즉 다시 발원한다는 것은 이 寺刹이 壬辰倭亂 때 燒失된 것을 朝鮮

肅宗 四年에 重創하여 그 후 어느 시기까지는 法燈이 끊이지 않고 이어 왔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현재는 寺刹은 폐허가 되었고 寺址 일부는 田畝으로 변화하였으며, 그리고 石造物들은 방치되어 있다. 특히 石佛 三軀중 立佛로서 큰 像은 무지한 사람에 의해 頭部가 肉髻을 포함하여 七部分으로 쪼개져 있다. 이는 頭部를 적당한 크기로 쪼개서 필요한 용도에 사용코자한 무지의 소행인 것 같다.

本稿에서는 石佛 三軀가 彫刻手法으로 보아 前代의 양식을 어느 정도 계승한 優秀作이며, 다소 특징이 있다고 생각되어 이 像들에 대한 形狀 및 形式的 특징과 造成意義와 編年 등을 고찰하므로써 高麗時代 佛像研究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그리고 편의상 三軀의 佛像 중 立佛로서 큰 像을 大石佛立像, 보다 작은 像을 小石佛立像이라 하겠다.

## 二、形狀 및 特徵

### ① 大石佛立像

이 石佛(圖—二—①②③)은 현재 크게 三等分으로 나뉘어졌다. 즉 頭部가 떨어져서 身部가 둘로 區分되었는데, 그 중 身部下體의 둘은 맨아랫부분이 매몰되어 현상을 알 수 없다. 크기는 肉髻高 二六cm, 頭高 約九八cm, 肩幅 一一六cm, 上體身高 一二七cm, 下體身高 一〇七cm이다. 頭部와 목, 허리와 身部下體를 圓孔(圖—三—①, ②) 直徑 一一·二cm, 깊이 一五·五cm에 의해 조립하게 되었는데 목에는 중심에 원공이 하나, 허리부분에는 좌우로 두개이다. 頭部는 물지자한 사람에 의해 肉髻을 포함하여 七部分으로 파괴되었다. 肉髻는 비교적 높고 일곱은 타원형이나 마모가 심하여 겨우 눈, 코, 입, 귀의 윤곽만을 식별할 수 있을 뿐이다. 머리에는 螺髮의 흔적은 없고 露天佛인 경우 대개 寶蓋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寶蓋를 썼던 흔적 또한 찾아볼 수 없다. 양손은 복

부에서 합치고 있는데 法衣에 감춰져 보이지 않는다. 목에는 三道가 뚜렷하고 法衣는 通肩이다. 法衣의 깃은 V字形이고 그 이하는 平行 U字形이며 왼쪽 어깨에서는 五條의 隆起線으로 返轉되고 있다. 그리고 복부에 모은 양손을 감싼 주름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흘러내리고 있다. 身部下體에서는 平行 V字形으로 가운데는 음각선으로 좌우 끝에는 각一條의 隆起線으로 두다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비록 이像是 巨石佛立像이지만 다른 像에 비해 당당한 어깨와 약간 찢어진 허리는 위엄이 있어 보인다. 대체적으로 高麗前期에 造成된 巨石佛立像은 巨石을 다루는 솜씨의 미숙인지 모르지만 佛身을 표현함에 있어 피체감만 있고 量感의 현저한 감퇴와 身部下體로 내려갈 수록 法衣의 주름을 대략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像是 佛身의 세부표면에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렸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法衣의 주름을 身部下體까지 높은 隆起線으로 처리하고 있어 피인상적이다.

이像是 法衣의 깃이 V字形으로 현재 우리가 착용하는 옷의 깃과는 반대로 왼쪽 깃이 오른쪽 깃속으로 접어들어갔고, 복부에서 두 손을 모으고 있는데 法衣가 감싸 흐르고, 三等分으로 나뉘어진 佛身을 圓孔에 의해 조립하는 방식이 특이하다.

法衣의 깃이 V자로 표현되는 경우는 먼저 三國時代의 古墳壁畫 중 三室塚(中國 輯安, 五—六世紀) 第一室 南壁左部 壁畫 중 人物像, ③ 無踊塚(中國 輯安, 六世紀) 主室東壁厨房 無踊圖 중 人物像, ④ 또는 主室西壁 狩獵圖 중 人物像, ⑤ 角抵塚(中國 輯安, 六世紀) 主室北壁 壁畫 중 人物像, ⑥ 通溝一二號墳(中國 輯安, 六世紀) 女人行列圖⑦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中國 雲岡石窟의 造像 중에서 第六洞 南壁下層中央龕 維摩·文殊對問 중 文殊像, ⑧ 曇曜五窟 西方群東端三洞 第一九B洞 前壁 左部下半 佛像, ⑨ 第一六洞 南壁東大龕寶壇 供養者列像⑩에서 또한 찾아볼 수 있다. 우리의 造像 중에서는 高麗時代 初期의 造成으로 推定되는 禪院寺鐵造如來坐像과 朝鮮時代의 實相寺瑞眞庵石造羅漢坐像(一五一六年 造成), 水鍾寺石塔發見金銅羅漢坐像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三

國時代 古墳壁畫의 人物像 중 中國 輯安에 소재하는 古墳壁畫와 中國 雲岡石窟의 造像 중에서 於屯里像의 法衣의 깃이 접어들어간 경우와 같은 표현은 당시 中國에서는 이러한 옷깃도 표현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上記한 三國時代 古墳壁畫가 中國 輯安에 편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중국 영향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중국 雲岡石窟의 造像 중에는 於屯里像과 같은 法衣의 깃이 보이지만 우리의 造像 중에는 앞에서 말한 三軀의 佛像是 V字形 法衣의 깃은 유사하지만 法衣의 깃이 접어들어간 것은 반대이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於屯里像의 法衣의 깃은 우리 造像 중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옷깃을 채용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於屯里像의 法衣의 깃의 표현은 彫工의 의도 아니면 착각이나 無觀心으로 생각된다.

왼쪽 어깨에서 法衣의 깃이 返轉되는 경우는 주로 統一新羅時代의 石像에서 많이 보이고 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조금씩 달라 다양하다. 이 於屯里像과 유사한 예는 塞松寺址石佛坐像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복부에서 두 손을 모으고 있는 경우는 軍守里石造如來坐像이나 南宮練氏所藏 金銅如來坐像에서 찾아볼 수 있고, 또한 石像으로서는 益山古都里石佛立像, 전북 장수군 산서면 원흥리와 부안군 행안면 송정리彌勒佛立像, ⑪ 全南和順郡 多塔洞 雲任寺石佛立像 중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⑫ 그런데 於屯里像是 法衣가 두 손을 감싸 흘러내리고 있는데 이와 같은 예는 장수군 원흥리, 부안군 송정리 彌勒佛立像과 雲任寺石佛立像이다. 특히 장수군 원흥리상은 두 손을 약간 위로 쳐들어 그 밑이 완만한 孤形을 그리고 있는 점까지 於屯里像과 유사하다.

佛身이 三等分으로 나뉘어진 것을 圓孔에 의해 조립하는 방식은 禮山四面石佛⑬ 중 坐像과 立像, 萬奇寺鐵造如來坐像⑭의 손을 別造(鑄)하여 끼어 맞추게 된 경우와 같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경우는 佛像을 造成 또는 鑄造함에 있어 손을 처리하기가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灌燭寺石造彌勒佛立像, 中原彌勒里彌勒佛立像, 禮山插橋石造

菩薩立像, 利川長湖院毘彌勒佛立像 등은 身部가 二~四等分으로 造成되었다. 그런데 이들 像은 圓刻像으로 於屯里像의 橢圓形 板石에 造成되어 원공에 의하지 않고는 세울 수가 없는 경우와는 다르므로 단정시킴이 어려우나 상기 像들도 원공에 의해 조립되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렇게 몇 부분으로 나뉘어진 巨石像들이 원공에 의해 조립되었다고 가정할 때 灌燭寺像은 高麗 光宗 一九年(九六八) 造成으로 볼 수도 있어<sup>15)</sup> 원공에 의한 佛身 조립방식이 이때에도 있었다는 가정이 성립될 수 있다. 이러한 원공에 의해 조립되는 시기를 떠나서 於屯里像은 몇 부분으로 나뉘어진 巨石像이 원공에 의해 조립되는 방식을 보여주는 좋은 예로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 ② 小石佛立像

이 石像(圖一四)은 頭部가 떨어져진 채 비스듬히 세워져 있다. 身部下體一部가 매몰되어 그 아래의 현상은 알 수 없다. 크기는 現高 一七五cm, 肩幅 五七cm이다. 頭部와 목은 원공(圖一五)에 의해 조립되게 되었다. 大石佛立像의 당당한 체구와는 달리 어깨는 왜소하고 法衣의 주름은 卍에서 平行 V字形을 그리고 그 좌우에 一條의 縱線으로 표시하는 매우 도식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구부린 팔꿈치에서는 二條의 孤形을 그리고 뒷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手印은 오른손을 內掌하여 가슴에 대고 왼손 역시 內掌하여 오른손을 감싸주고 있다.

全南 和順의 千佛千塔洞 現雲住寺谷에는 약 二〇餘基의 石塔과 약 七〇餘軀의 石佛이 散在하고 있다. 이 곳 佛像 중 양손을 가슴에 낸 역 V字形 手印이 많이 보이는 데 이러한 手印이 於屯里像의 手印과 유사한 것같이 보이나 세부 표현은 다르다. 즉 於屯里像은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주고 감싼 손의 손가락까지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雲住寺谷 石佛의 手印은 양손을 서로 맞대고 있을 뿐 손가락 등은 생략하여 그 형상만을 나타내고 있다.<sup>16)</sup>

佛像을 造成함에 있어 꼭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sup>17)</sup> 手印이 그 佛

像의 성격을 규정지을 수도 있는 것처럼 造像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고려시대에 조성된 巨石佛은 제각기 다른 모양의 手印을 하고 있고 또한 그 표현이 어색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것은 佛像을 造成함에 있어 手印에 대한 彫工들이 무관심이나 기술이 부족 아니면 엄격한 圖像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sup>18)</sup> 이러한 경우를 살펴보면 灌燭寺像은 오른손은 가슴에서 엄지와 중지를 왼손은 구부려 역시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고, 中原彌勒里像은 오른손은 가슴에 대고 왼손은 卍에서 寶珠를 쥐고 있으며, 大鳥寺像은 오른손은 가슴에 대고 왼손은 卍에서 연꽃가지틀 쥐고 있다. 이와 같이 手印의 표현이 다양하고 어딘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어색한 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手印이 어색한 표현은 於屯里像도 마찬가지인데 이 像의 手印을 실제로 취해보면 퍼짐이 들어 제대로 따라 취할 수가 없다. 따라서 마치 두손을 억지로 갖다 붙여 놓은 것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 ③ 石佛坐像

이 坐像(圖一六)은 頭部와 光背上段 일부가 毀損되고 臺座 또한 缺失되었으나 三軀의 佛像 중 가장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그 형식을 비교적 잘 파악할 수 있다. 크기는 現高 六五cm, 肩幅 三八cm, 膝幅 七〇cm, 背高 一〇二cm이다. 大石佛立像 처럼 당당한 어깨에 약간 잘룩한 허리는 위풍이 있어 보인다. 身部와 光背가 一枚石으로 조성되었다. 光背는 寶珠形 擧身光으로 二條의 隆起線으로 圖形의 頭光과 身光으로 구분되었고 周緣에는 火焰文이 彫飾되었다. 오른손은 오른쪽 무릎위에 올려놓아 降魔印을 취하고 왼손은 구부려 卍에서 法衣의 주름을 잡고 있는 듯하다. 양 무릎은 어깨의 너비에 비해 폭이 넓어 안정감과 古高한 느낌을 주고 있다. 法衣의 주름은 가슴에서 卍까지의 平行 U字形으로 처리하였고 어깨에서 팔목까지는 平行 隆起線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무릎까지 감싸고 있다. 왼쪽 팔목을 덮은 法衣는 왼쪽 무릎까지 마치 부채살이 퍼지듯 흐르고 있어 매우 도식적이다.

이坐像은 光背의 형식이거나 어깨의 폭에 비해 무릎폭이 넓은 점 등에서 前代의 양식을 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光背는 統一新羅時代의 조성인 桐華寺毘盧庵石造毘盧舍那佛坐像、清涼寺石造如來坐像、榮州北枝里石佛坐像、覺淵寺石造毘盧舍那佛坐像 등의 舟形光背가 寶珠形光背로 넘어온 것으로 이들의 光背와 전체의 형태는 유사하다. 그러나 마모로 인한 때문인지 상기한 佛像들의 光背에는 蓮花文、唐草文、寶相花文、連珠文、雲文、化佛 등 화려한 彫飾이 된 경우가 많은데, 이 於屯里像의 光背에는 이러한 彫飾이 보이지 않고 다만 二條의 圓形隆起線으로 頭・身光을 구분하고 그 周緣에 火焰文이 彫飾되었을 뿐 간략화와 퇴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 三、造成意義 및 編年

이 三軀의 佛像 중 坐佛은 法堂에 奉安하였고 立佛 二軀는 露天에 세워 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三軀의 佛像은 彫刻手法이나 양식으로 보아 同時의 조성이나 坐佛이 立佛보다 前代의 양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듯하고 조각도 우월한 것같이 보이는 것은 巨石을 다루는 솜씨의 미숙으로 인한 차이라고 생각된다.

高麗前期에는 巨石佛의 조성이 유행하였는데, 이는 고려가 개국되면서 파괴에 찬 신예의 기력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立佛 二軀 중 大石佛立像은 灌燭寺像、大鳥寺像、中原彌勒里像 처럼 一〇m 내외가 되는 巨石佛은 아니지만 現高가 三五八cm로서 巨石佛에 속한다. 고려시대에는 이와 같이 巨石佛을 많이 造成하여 이 像들을 彌勒으로 통칭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② 이와 같은 경우는 坡州龍尾里石佛立像 중 圓笠佛로서 큰 像을 男彌勒、方笠佛로서 작은 像을 女彌勒、③ 그리고 경기도 안성군 삼죽면 기솔리, 안성읍 아양동, 포천군 군내면 구유리 石佛立像 등을 男·女彌勒으로 부르듯이 京畿道 一圓에서만도 몇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이들 巨石佛立像은 前代인 統一新羅時代의 佛像傳統과는 다른 독특한 양식의 불상이라 말할 수 있다. 즉 土俗의인 民間信仰과 결합된 예배 대상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前代의 발달하면서도 理想的인 佛像은 구현하지 못하고 다만 고려 특유의 佛像을 조성하였던 것이다. ④ 土俗的인 民間信仰과 결합된 佛像을 조성한 것은 彫刻手法으로 보아도 그렇지만 상기에 예를 들은 二佛 並立像을 각각 男·女彌勒으로 불러 佛像에 男·女の 性을 부여하고 있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於屯里像 역시 二佛의 並立하여 大小佛像을 각각 男·女彌勒으로 불러왔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二佛이 並立하였고 현재도 이곳 지명을 彌勒谷이라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彌勒佛은 未來佛로 彌勒淨土 往生을 기원하여 三國時代부터 널리 유행하였던 것으로 高麗·朝鮮時代까지 祈福信仰으로 또는 得男、禁淫、治病、守護 및 巫俗의 呪術的 信仰으로서 大衆佛敎의 성격을 지니고 발전하였던 것이다. 특히 고려시대에서 특이한 양식인 巨石佛을 조성하여 彌勒으로 불러워져 미륵신앙이 널리 유행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高麗 太祖 王建은 九一八年 新興王朝를 開國하였으나 통일신라시대부터 지방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등장한 豪族勢力들이 막강한 실력을 행사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王建은 이들의 세력을 수습하여 王權을 확고히 하고자 이들과 타협과 연합을 시도하기 위해 全國 二〇餘 호족들과 혼인관계를 맺었고 또 때로는 그들에게 王氏의 姓을 주어 擬制家族의인 관계를 유지하는 ⑤ 한편 사상적인 결집을 위해 미륵신앙을 대두시켰던 것으로 생각된다. 즉 弓裔가 鐵原에 泰封國을 세우고 方袍를 입고 金幘을 쓰고 出入할 때는 童男童女들로 하여금 香花幡蓋를 들고 앞에서 引導하게 하며 比丘 二〇〇餘名을 뒤에 따라오면서 梵唄를 짓게 하였으며 스스로 經을 二〇餘卷이나 짓고 때로는 正坐하여 講說까지 하면서 自稱 彌勒佛이라 하였던 것이다. ⑥ 이렇게 하여 新羅에서 民心을 離脫시켜 자기에게로 歸向토록 하였던 것처럼 彌勒信仰을 중심으로 民心을 수습하는 것이 용이하였던 것이다.

彌勒信仰은 彌勒三部經에 의한 것으로 下生經에 의하면 미륵은 미래 불로서 五六억 七천만년(菩薩參胎經賢愚經、雜心論、彌勒上生經、定意經 등에 각각異說이 있음) 후에 지상에 내려와 三會에 걸친 龍華法會를 說하고 地上을 樂土로 만들어 理想國家를 建設한다는 유토피아적理想을 가진 信仰이다.<sup>25)</sup> 그러므로 社會가 혼란할 수록 더욱 더 열렬한 믿음을 받게 되는 것으로 혼란기에 民心을 수습코자 함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대두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巨石佛을 조성하여 미륵으로 통칭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高麗는 開國과 동시에 왜기에 찬신예의 기력으로 神福寺址佛像이나 廣州下司倉里鐵造如來坐像(現國立博物館所藏)、校文里磨崖藥師如來坐像과 같은 우수한 作品도 조성하는<sup>26)</sup> 한편 특이한 양식인 巨石佛도 조성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巨石佛은 생기를 잃은 얼굴의 표정、細部彫刻이 정제되지 못하고 어색함、上體에 비해 下體가 길어 신체 불균형 또는 괴체감 등으로 理想的인 佛像을 조성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원인은 前代에 비해 창의력이나 造形美가 뒤떨어지고 제작기술의 쇠퇴와 정신적 타락현상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당시에는 禪宗의 유행에 따른 佛像造成의 質量的 감퇴와 大藏經이나 寫經類의 유행에서 오는 造形意欲의 解弛에도 원인이 있다.<sup>27)</sup> 따라서 고려시대에는 대체적으로 佛像을 조성함에 있어 佛身에 量感이 현저히 위축된 자세와 생기 잃은 얼굴에서 예배대상으로서의 神聖한 느낌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sup>28)</sup> 이러한 경향은 於屯里像들도 마찬가지로 圖式化와 退化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大石佛立像은 목에 三道의 表現、왼쪽 어깨에서 法衣의 것이 반전、圓孔에 의한 조립방식、法衣의 주름을 높은 隆起線으로 身部下體까지 처리하여 선명하고 강한 느낌을 주고 있는 점、그리고 石佛坐像은 어깨의 목에 비해 무릎목이 넓고、光背의 形式 등에서 前代의 양식을 어느 정도 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大石佛立像은 高麗時代に 조성된 巨石佛이란 점、비롯 頭部는 七部分으로 쪼개져 확

실치는 않으나 그 윤곽이 坡州龍尾里와 安東泥川洞石佛立像 처럼 힘을 나타내는 표정과 친연성이 있고、法衣의 것이 V字로 고려전기 조성으로 추정되는 禪院寺鐵造如來坐像에서 그 遺例를 찾아볼 수 있으며、石佛坐像의 光背形式이나 어깨목에 비해 무릎목이 넓어 안정감과 古高함 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들 像은 고려전기의 조성이라 생각된다.

高麗時代의 佛像彫刻 양식은 新羅의 전통적인 조각양식이다 羅末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地方的 性格、고려 자체의 새로운 氣運 및 外來의 因素 등이 加味된 다양한 양식을 지녔기<sup>29)</sup> 때문에 於屯里像만으로서 어떤 성격을 규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廣州下司倉里鐵造如來坐像 이 八世紀 寫實主義 彫刻의 극치인 石窟庵本尊佛의 위엄을 모방하여<sup>30)</sup> 조성된 것과 같이 당시에는 前代의 양식이 계승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곳에 함께 遺存되고 있는 石造物片(圖一七—①②③)이나 瓦자에 의해 수습된 숫막새편(圖一八—①②) 二점도 이들 佛像의 造成編年을 제시해주는 자료라고 생각된다. 臺座 上面이 부등변 八角형으로 된 蓮花臺座(圖一九)의 蓮瓣과 숫막새편 二점 중 圖一八—②의 蓮瓣이 동일하다. 숫막새편 중 圖一八—①는 燒失에 의해 붉은 색으로 변하였고 子房은 크며 蓮瓣는 復瓣으로 가늘고 짧아 조밀하다. 圖一八—②은 胎土는 거칠고 검다. 그리고 蓮瓣는 길고 폭이 좁아 전형적인 고려시대 전기의 蓮瓣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예는 高達寺址石佛座의 蓮瓣(圖一〇)과 동일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고려전기의 조성으로 추정되는 이 於屯里像은 彫刻手法이 優秀할 뿐 아니라 細部表現에서 前代의 양식을 계승한 점이 보이고 또한 각각 특징을 지니고 있어 고려시대 佛像研究에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四, 맺는 말

이상으로 於屯里破佛 三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 像들은 頭部의

破損 및 缺失 그리고 立像 二軀는 下體 일부의 缺損, 坐像은 臺座의 결실 등으로 損은한 高찰은 어 려웠으나 현 상태로 어느 정도 현상을 파악하여 보았다고 생각된다.

이 像들은 비루 寺名을 알 수 없는 조그마한 廢寺址에 遺存되고 있지만 前代의 양식을 따르면서도 고려시대 특유의 양식으로 조성된 중요한 佛像이라 생각된다. 특히 大石佛立像의 圓孔에 의해 조립되는 방식은 주목되는 일로서 身部가 몇 부분으로 나뉘어진 石像들의 結構方式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왼쪽 어깨에서 法衣의 것이 반전되고 石佛坐像은 어깨의 폭에 비해 무릎폭이 넓어 안정감과 古高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이 곳에 함께 遺存되고 있는 石造物片과 필자가 수습한 숫막새편 二點 등의 자료로 이 像들을 고려 전기의 조성으로 추정해 보았다.

따라서 京畿道 一圓에서는 이 於屯里像 만큼 巨石佛로서 優秀한 作品도 흔치 않다고 생각되므로 廣州下司倉里鐵佛坐像, 校文里 太平 二年銘(九七七) 藥師如來坐像과 더불어 京畿道 一圓의 고려시대 불상양식 제보를 想定함에 있어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아울러 고려 시대 조각사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 하겠다.

- ① 『楊州郡誌』(楊州郡, 一九七八, 一一), p. 422.
- ② ① 附 錄, p. 168~169, 州內面과 이웃한 白石面 蓮谷里 蟹蹄嶺에서 壬辰倭亂 때 副元帥 申格의 倭軍을 맞아 격전을 벌였다. 따라서 於屯里 大母山城은 廣積面 일대를 굽어볼 수 있는 요충지이고 議政府市와 白石面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여 倭軍의 통로였을 것으로 본다.
- ② 『文化遺蹟總覽』京畿道篇(文化財管理局一九七七, 一一), p. 155, 壬辰倭亂 때 격전지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 ③ 金元龍, 『韓國美術全集』壁畫四(同和出版社, 一九七八, 九) p. 37, 圖版 參照.
- ④ 玄奘, p. 62, 67, 圖版 參照.
- ⑤ 玄奘, p. 68, 圖版 參照.
- ⑥ 玄奘, p. 75, 圖版 參照.
- ⑦ 玄奘, p. 103, 圖版 參照.

- ⑧ 長廣敏雄, 『雲岡石窟』(世界文化社, 一九七六, 五), p. 54, 55, 圖版五二 參照.
- ⑨ 玄奘, p. 101, 圖版二七 參照.
- ⑩ 玄奘, p. 143, 圖版六九 參照.
- ⑪ 金三龍, 『韓國彌勒信仰의 研究』(同和出版社, 一九八四, 九, 圖版三, 七 參照.
- ⑫ 『雲住寺』, 全南大古蹟調査報告 第三册(全南大博物館, 一九八四, 一一), p. 41, 삼도 一五.
- ⑬ 黃壽永, 『國寶』二, 金銅佛·磨崖佛(藝耕產業社, 一九八四, 八), p. 118, 圖版一一三 參照.
- ⑭ 『文化財總覽』指定文化財篇(京畿道, 一九七八, 二), p. 78, 圖版解說.
- ⑮ ① 黃壽永, 『國寶』四, 石佛(藝耕產業社, 一九八五, 五), p. 217, 圖版 解說. ② 秦弘燮, 『韓國佛像의 研究』(一志社, 一九八〇, 六), p. 308.
- ⑯ 『雲住寺』, 玄奘, 삼도 및 圖版 參照.
- ⑰ 黃壽永, 『불교사와 석굴암』(세종대왕 기념사업회, 一九七九, 一一), p. 186~190.
- ⑱ ① 一八九一年 石窟庵 重修 당시 懸板의 彌陀窟이라 기록한 사실, 전래하고 있는 扁額의 壽光殿, ② 右肩偏袒의 法衣와 降魔觸地印은 당시 新羅 阿彌陀佛像에 널리 보급된 양식, ③ 前世 父母를 위하여 造營되었다는 기록(三國遺事)이 있는데 그렇다면 구라세계의 주인공이며, 現世佛인 아미타를 奉安하여 마땅하며, ④ 石窟庵 축조 당시 즉 八世紀는 특히 極樂淨土 信仰을 배격으로 삼았다는 이유로 石窟庵 本尊을 阿彌陀로 보고 있다.
- ⑲ 金理那, 『高麗時代의 石造佛像 研究』, 『考古美術』一六六·一六七合輯(韓國美術史學會, 一九八五, 九), p. 63.
- ⑳ 金明淑, 『韓國佛像光背의 樣式 研究』, 『梨花史苑』第十六輯(梨花女子大學校, 一九七九), p. 21~22.
- ㉑ ① 黃壽永, 『高麗의 彫刻』, 『藝術院總覽』(藝術院, 一九六四), p. 156, 論 山灌獨寺石造觀音菩薩立像도 後代에 와서 彌勒으로 通稱되고 있다.
- ㉒ ② 金理那, 『玄奘』, p. 66~67.
- ㉓ 『文化財總覽』, 玄奘, p. 34.
- ㉔ 金理那, 『玄奘』, p. 69.
- ㉕ 李基白, 『韓國史新論』(一) 朝閣(一九八一, 一), p. 126.
- ㉖ 『三國史記』列傳 第十弓裔條(乙酉文化社, 一九八〇, 一), p. 453.
- ㉗ 『善宗自稱彌勒佛, 頭戴金幘, 身被方袍, 以長子爲青光菩薩, 季子爲精光菩薩, 出則常騎白馬, 以綵飾其鬚尾, 使童男童女奉幡蓋香前導, 又命比丘二百餘人梵唄隨後, 又自述經二十餘卷, 其言妖妄, 皆不經之事, 時或正坐講說』

- ②⑤ ① 吳享根,『彌勒思想』,『佛教學報』,二十一輯,(東國大佛教文化研究院,一九八四,一〇),p.137.  
 ② 金三龍,『삼국사기』,p.42.  
 ③ 安啓賢,『韓國佛教思想史研究』,(東國大出版部,一九八三,六),p.180.  
 ④ 文明大等,『東洋美術の鑑賞』彫刻篇,(悅話堂,一九七七,八),p.119.  
 ⑤ ① 黃壽永,『高麗의 彫刻』,『삼국사기』,p.152.  
 ② 秦弘燮,『高麗時代の佛像』,『月刊中央』第一九號,(一九六九,一〇),p.174.  
 ⑥ 金理那,『삼국사기』,p.60.  
 ⑦ 秦弘燮,『삼국사기』,p.173~175.  
 ⑧ 崔聖銀,『溟州地方의 高麗時代石造菩薩에 대한 研究』,『佛教美術』五,(東國大博物館,一九八〇,九),p.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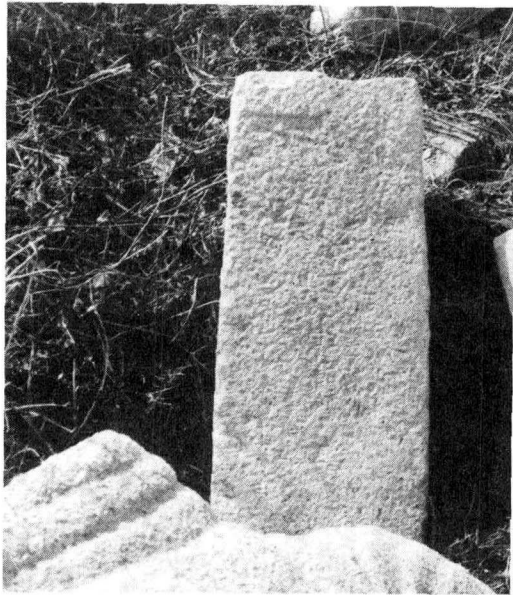


圖 1. 石 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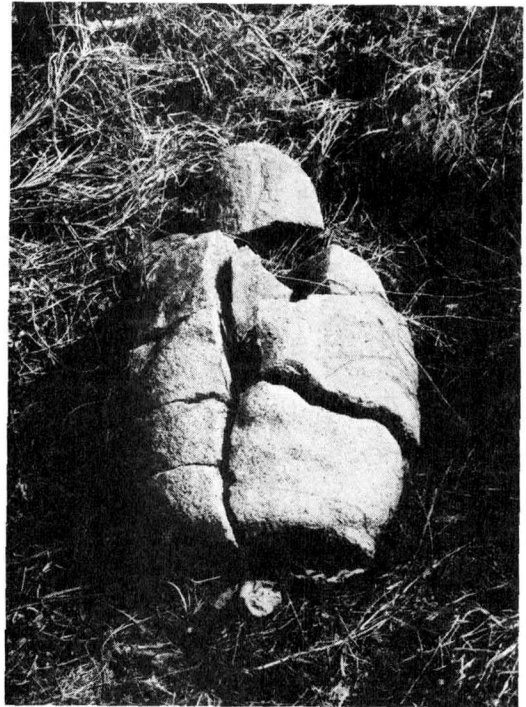


圖 2 - ① 頭 部



圖 2 - ② 身部上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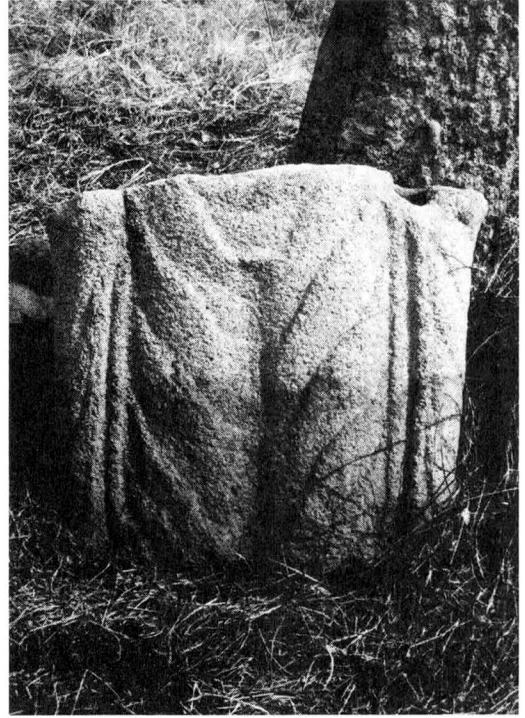


圖 2 - ③ 身部下體



圖 3 - ① 号圓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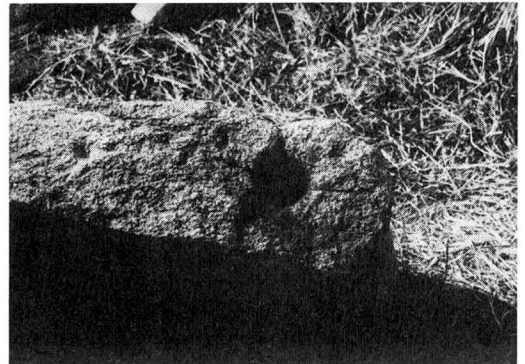


圖 3 - ② 身部下體 上面圓孔



圖 4 小石佛立像



圖 5 小石佛立像 号圓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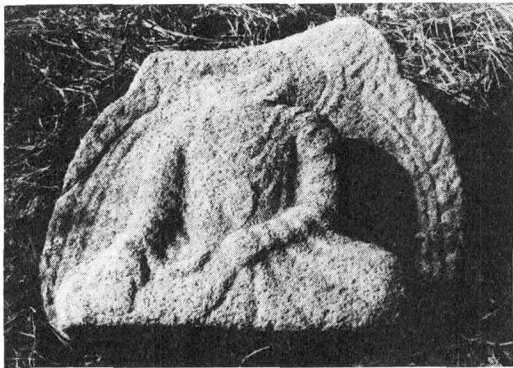


圖 6 石佛坐像



圖 7 - ① 石燈火舍石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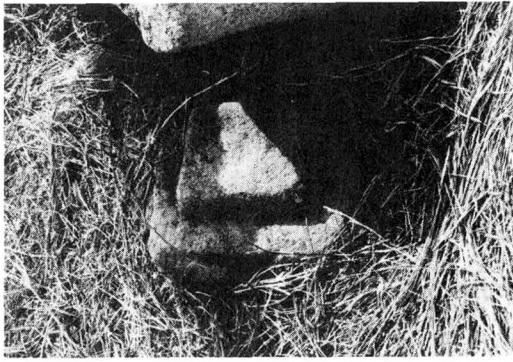


圖 7 - ② 石造物片



圖 8 - ①. 숫막새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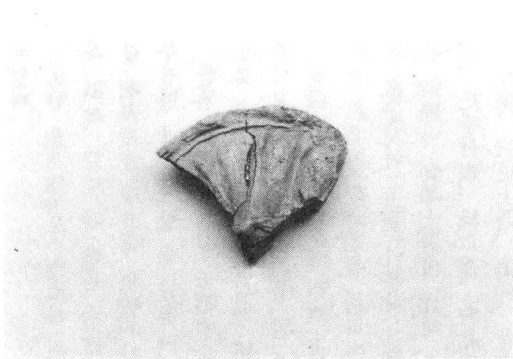


圖 8 - ②. 숫막새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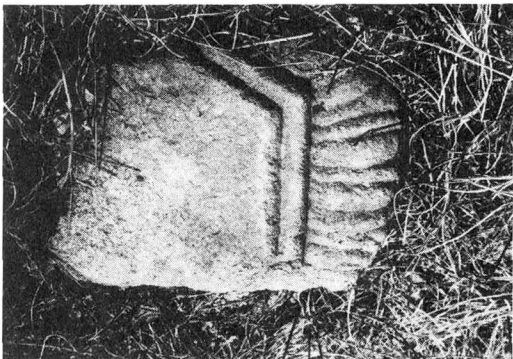


圖 9. 蓮花台座



圖 7 - ③ 幢竿支柱



圖 10. 高達寺址 蓮花台座